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아동문학

김경중

국문초록

필자는 페미니즘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간주하였다. 첫째는 여성의 성적 소외, 불안, 갈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둘째는 여성의 성 정체성 형성이고, 셋째는 여성의 성평등과 수월성 추구이다. 한편 아동문학에 대한 네 가지 준거는, 아동을 위해 쓰여진 문학, 아동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 문학, 아동에 의해 수용된 문학, 행위 및 상징체계로서의 문학이다. 이같은 준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아동문학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1. 전래동화에 투영된, 현실원칙과 쾌락의 원칙에 나타난 여성
2. 남녀의 균형적인 성역할 모델
3. 이니시에이션과 여성의 성적 성숙
4.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남녀의 성대결
5. 안데르센 동화에 나타난 페미니즘
6. 동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이같은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래동화 속에는 여성의 성적 소외, 불안, 갈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도와 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둘째 전래동화 속에는 성장기 아동이 겪게 되는 격리불안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때 불안의 근원은 대부분 모성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셋째 전래동화의 주요내용은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탄생과 성적 성숙, 성적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넷째 안데르센의 창작동화나 동시에 나타난 여성은 성의 평등과 정체성은 물론 여성의 수월성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은, 여성의 성적 소외, 불안, 갈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여성의 성 정체성 형성, 여성의 성평등과 수월성 추구 등의 내용을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1. 페미니즘과 아동문학의 개념

여성과 아동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 역사적으로 볼 때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은 가장 중요한 여성고유의 역할이었고 여성의 성 정체성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현모양처의 이상적인 여성의 행동범위¹⁾가 아동(Kinder), 부엌(Küche), 교회(Kirche)의 3K로 제한되기도 하고, 피임약²⁾의 등장도 여성문학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변인이 될만큼 아동과 아동의 출산은 생활 속에서 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같은 여성과 아동의 관계

1) Georg Siegmund, *Die Stellung der Frau in der welt von heute*, 박영도 역, 『현대 여성의 지위』(부산, 1988), s60.

2) 박광자, 『새로운 여성문학의 개념과 특성』한우근 교수 회갑기념논문(이영사, 1990), p.25.

“여성문학 대두의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박광자 교수는 1970년대 독일의 여성문학이 전성기를 맞아 꽃피게 된 배경변인을 독일의 사회상황과 여성의 지위변화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50년대까지 현모양처로서 이상적인 여성의 활동범위는 아동(Kinder), 부엌(Küche), 교회(Kirche)로 국한되었다. 이차대전 후 기혼여성의 1/3이상이 전후독일의 복구사업에 취업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얻게 되었고 여성의 가사부담이 적어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늘고 정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70년대 피임약의 등장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문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통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이같은 현상은 특수문학으로서 페미니즘문학 또는 아동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의 일천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같은 이유만으로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을 조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는 동서고금의 문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문학에서 아동은 여성의 역할, 성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어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여성과 아동, 아동문학에 투영된 페미니즘은 태생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을 조망해 보는 일은 아동문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문학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지평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페미니즘과 아동문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은 최근 범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코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학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문제는 성적 선택, 계급 및 인종 등과 다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사전³⁾에는 “페미니즘을 여성평등권원칙(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결성된 운동)과 동시에 단순한 평등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위한 세상을 창조할 목적으로 사회변혁을 일으키려는 이데올로기의 통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전통에서 여성은 여성 자체가 아니라 결합있는 남성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페미니즘은 이런 사회모순 속에 특수한 형태로 내재해 있는 어떤 문제를 포착해내고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여성의 소외나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의 감추어진 두려움과 분노를 해방시키거나 고통스러움을 일깨우도록 하는 과정을 중시하며 여성이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의 문제를 제안하고 있다.⁴⁾

3) 메기힘, 『페미니즘 이론사전』, 심정순 역(삼신각, 1995).

4)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 11~12.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필자는 페미니즘에는 여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여성의 정체감 형성이며, 둘째는 여성의 성적 소외, 불안, 갈등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셋째는 여성의 성 평등과 수월성 추구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가 조망하고자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은 당연히 아동문학에 투영된 이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실제의 작품에서는 각각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표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장르에 따라 그 성격 또한 상당히 달라서 아동문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페미니즘의 관점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 정의가 간단하지 않은 것처럼 아동문학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의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있는 아동문학의 정의는 동요, 동시, 동화, 아동소설, 아동극 등 장르의 총칭이나 “아동과 동심을 그리는 어른에게 읽히기 위해 쓰여진 동요 동시 동화 동극 등 다양한 아동문학장르” 라고 되어 있다.⁵⁾ 그러나 이 같은 정의는 아동문학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개념이기보다는 문학의 대상 또는 장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본 연구에서 아동문학을 다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아동문학의 특성을 진술하고자한다.⁶⁾

첫째는 아동을 위해 쓰여진 문학이다. 서구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부터 아동들만을 위해 작품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요즘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창작동화, 동요, 동시, 동극, 그림책, 지식정보의 책 등은 창작에서부터 제작 출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기획과정부터 독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동을 위해 쓰여진

5)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형설출판사, 1988).

6) 김경중, 『아동문학교육의 이해』, 학지사, 근간. 필자는 이 책에서 Carsten Gansel 교수의 최근저 *Moderne Kinder- und Jugendliteratur*(ComelsenVerlog Scriptor Gmbh & co,K.G, Berlin, 1999), s. 8~20을 참조하였다.

문학”의 범주에 해당한다.

둘째는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 문학이다. 아동문학은 아동을 위해 쓰여진 작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위해 쓴 작품이라도 부모, 교사, 교회, 사회단체, 전문가 등에 의해서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 작품들은 널리 아동문학에 포함되어왔다. 걸리버 여행기, 돈 키호테, 로빈슨 크루소 등의 작품은 성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이지만 성인보다 아동들에게 널리 읽혀져 왔다. 그뿐만 아니다. 신화, 전설, 민담, 우화와 같은 설화문학작품들이 전래동화나 옛날이야기와 같이 전승문학의 형태로 아동문학의 장르에 널리 포함되었다.

셋째는 아동에 의해서 수용된 문학이다. 아동문학작품의 경우, 실수요자는 아동이지만 실제 구매자는 대부분 부모, 교사나 친척 등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전달 및 유통체계의 2중구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 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어린 독자들은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없이 자신들을 위해 쓴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어른들에 의해서 적합하다고 인식된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해서 읽는 것은 아니다. 모리스 센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간결한 텍스트와 독특한 일러스트로 구성된 창작 그림동화인데, 처음 출판되었을 때 교사 평론가들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동화로 비판을 받았지만, 어린 독자들의 선풍적인 반응에 힘입어 재평가되었고, 작가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 문학상, 갈데콧 일러스트상 등을 수상한 명작이 되었다.

동시의 경우도 그렇다. 에드워드 리어(Edward Lear)⁷⁾의 「부엉이와 고양이(The owl and the pissy-cat)」란 시에 대해서 어른들은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아동이 얼마나 좋아하는 작품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7) 페리노들면, 김서정 역, 『어린이문학의 즐거움』(시공사, 1996), p.45.

넷째는 행위 체계와 상징체계로서의 아동문학이다. 우리가 사회의 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문학도 하나의 사회 행위체계로 볼 수 있는데, 아동문학은 “특별한 예술영역”이라는 체계로서 볼 수 있다. 아동문학의 행위체계는 다음과 같이 내부구조로 이루어진다.

① 문학생산(제작) : 저자, 편집자, 담당자, 구연가, 번역가, 강사

② 중재 : 출판자, 대표자, 도매상인, 서점주인, 비평가, 교사

③ 수용 : 일반독자, 비평가, 문학가, 학자, 교사

④ (책)가공, 마스트 : 이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작품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아동문학은 그 대상이 아동이란 점에서 청소년 문학에 비해 아동의 심리적 욕구충족과 교육적 측면이 특히 강조된다. 그래서 성인문학이 자주적인 데 비해 아동문학은 인습, 규칙 특징을 가진 비자주적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아동문학은 여성문학, 종교문학, 이민자 문학과 같이 “특수 목적 집단 문학”이다. 다시 말해서 아동문학은 잠재적 독자가 갖고있는 특징(연령, 인지능력, 사회적 역할)에 따라 만들어지는 문학이기에 한정된 독자집단과 문학적 행위체계를 형성하며 제작, 중재, 수용, 가공 등을 포함하며 특수한 제작자 출판사 저자 판매점 등이 아동문학의 생산에서 가공까지 요구된다.

한편 아동문학은 행위체계뿐만 아니라 상징체계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동문학을 작품의 소재, 주제, 표현방식, 장르별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아동문학은 상징체계와 관련하여 정해진 판단기준, 규칙, 평가척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치의 유무에 따라 정형화되는데 작품에 따라 가치는 형식적 가치, 내용적 가치, 상대적 가치, 효과적 가치로 구분된다.

이상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아동문학을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수용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목적상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 창작동화, 동시 등 앞에서 제시한 아동문학의 네 가지 정의에 합당한 전형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작품에 표출된 페미니즘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 전래동화에서의 페미니즘

전래동화는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에서 그 상징적 심리적 의미를 포착하여 아동의 정신적 발달 수준에 맞게 개작 재화화한 아동문학의 중요한 장르이다.⁸⁾ 전래동화는 고대의 신화와 전설에서 중세의 설화와 근대의 메르헨에 이르기까지 민족, 민중문학으로 정착된 전승문학이라는 점에서, 한시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 창작물이다. 그러므로 전래동화는 전세계적으로 특정한 문화와 내용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공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상과 상징의 방법으로 집단적 무의식과 개인적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정신의 특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래동화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프로이트를 선두로 융, 빌러, 빌츠, 디크만, 그리고 최근에 베텔하임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전래동화는 인간의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심층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전래동화에 대한 시적예술형식의 하나인 동화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해주었으며 어린이가 왜 동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심리학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⁹⁾

전래동화는 현실생활에서 아동이 겪는 분노, 격분, 절망, 시기심과 불안 등 성장발달단계에서 겪게 되는 감정과 문제들을 함축적으로 명사해 주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들 앞에서 어린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삶의 의미체계로서 전래

8) 김정중·김재숙, 『동화 및 언어지도』(양서원, 1997).

9) 김정중, 『동화의 심리학적 의미』(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동화 속에 나타난 집단 무의식 속에는 격리불안,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 성역할과 이니시에이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1) 격리불안의 문제

전래동화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탄생에서 성장 발달, 부모로부터의 분리독립과 결혼에 관한 통과의례(initiation)이다. 모든 것이 부모와의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아의 성숙과 사회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분리 독립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래동화의 대부분 내용은 발달과정에서 주인공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피할수 없는 사정에 의해 헤어지는 사건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예컨대 「해님달님」에서는 엄마가 호랑이에게 처절하게 잡아먹히는 줄거리가 나온다. 이는 철저히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엄마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것처럼 엄마가 무력하게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늑대와 7마리 아기염소」에서도, 염소엄마의 태도가 한국의 어머니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점의 차이는 있어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에서 계모로부터의 버려짐의 사건도 똑같은 맥락에서 부모로부터의 자립과 독립의 의지를 키워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같은 유형의 동화에서 대부분 계모가 등장하는 것은 엘렉트라적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친엄마보다는 계모가 자녀를 내쫓는 것이 독자의 납득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동화에서 버려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성장기 어린이의 가장 큰 심리적 불안의 문제가 격리불안이기 때문이다. 50대 이후의 한국인 중에 어려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니란 말을 듣지 않고 자란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당시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자녀의 독립과 자립의 의지를 심어 주는 일이 중요한 성장의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실제로는 예외없이 여성인 엄마로부터의 독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과 여성의 생태학적 밀착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일생동안 몇번의 격리과정을 거쳐 독립하게 되는데 그 첫과정이 젖떼기이고 다음이 심리적 이유이며 세 번째가 사회적인 독립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동과 심리적으로 가장 끈끈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애착고리를 끊기 위한 매개변인으로서 계모라는 안성마춤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친엄마와 계모를 막론하고 동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는 분리의식의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모성으로서의 여성이 자리잡고 있다.

2) 현실의 원칙과 쾌락의 원칙에 나타난 여성

아동은 성장발달의 과정에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해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같은 욕구는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구이며 이러한 욕구는 반드시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성장과정에서 마음 속에 일어나는 쾌락의 욕구들을 현실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베텔하임은 전래동화에 나타난 이 같은 문제를 현실원칙과 쾌락의 원칙이라고 명명했다. 그림의 전래동화 「어린 오누이」에는 이런 동물적인 욕구가 잘 나타나 있다.¹⁰⁾ 오누이는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간다. 우물을 발견하자마자 오빠는 아무 생각없이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누이동생은 “내 물을 마시면 호랑이가 되지, 내 물을 마시면 호랑이가 되지”하는 소리를 듣는다. 오빠는 누이의 권고로 간신히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선다. 두 번째 우물 앞에서 오빠가 물을 마시려 할 때 누이동생은 또 “내 물을 마시면 이리가 되지”하는 목소리를 듣고 오빠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우물앞에서 동생은 “내 물을

10) Bettelheim, B,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NY : Alfred A. Knopf, 1977).

마시면 노루가 되니”하는 소리를 듣고 말리지만 오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빠는 물을 마시고 어린 노루로 변해버리고 만다.

러시아의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전래동화 「누나 아료 누시카와 남동생 이와 누시카의 이야기」에서 무더운 별판에 버려진 두 오누이도 갈증을 참지 못해서 누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물을 마셔버린 동생은 산양이 되어버린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같은 류의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욕망이 지배하는 쾌락의 원칙에서 남성은 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여성은 현실의 소리를 듣고 그 욕망을 억제하며 인내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참고 위협에 빠진 남성(형제)을 구원한다.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에서 엘리자는 무력한 오빠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신이 된다.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에서 여성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쾌락 뒤에 숨어 있는 경고를 발견하고 현실의 원칙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에 처한 남성을 구한다. 이같은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은 성장기 아동의 무의식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무의식 속에 여성은 대부분 생명의 탄생과 보호의 중요한 존재로서 남성보다 더 깊이 각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남녀의 균형적인 성역할 모델

전래동화에서의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에 투영된 여성의 역할은 남성보다 우월하게 나타나지만 때로는 매우 균형잡힌 성역할 모델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화 속의 인물들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 속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같은 무의식적 양성성을 다루면서 남녀의 성역할 모델을 균형있게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헨젤과 그레텔이 있다.

베텔하임은 그가 사랑하는 전래동화 중에서도 「헨젤과 그레텔」을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지목하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¹¹⁾

가난한 나무꾼은 아내와 헨젤과 그레텔이란 두 남매와 산기슭에 살고 있

었다. 가난한 살림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어느 날 아내는 두 아이를 산속에 갖다버리자고 말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두 어린이는 부모 곁을 떠나 스스로 길길을 갈때가 됐음을 의미한다. 소위 이시기 어린이들에게 흔히 겪게 되는 부모의 격리불안(separation anxiety)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어진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했던 두 남매는 일단 한두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조약돌을 길에 떨어뜨려 찾아옴). 그러나 세 번째의 시도에서 두 어린이는 실패하고 만다(빵조각을 떨어뜨렸으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비록 용의주도한 준비라 할지라도 예상밖의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두 어린이들 앞에 참담한 고통과 불안만이 연속된다면 이야기는 재미없는 줄거리로 끝났을 것이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어린이들 앞에 참으로 신나는 광경이 나타난다. 온통 초콜릿, 사탕, 비스킷과 맛있는 빵으로 만든 집의 등장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린이들의 구강대 만족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쾌락의 원칙(원본능, id)을 유감없이 나타내주고 있다. “냠냠, 냠냠, 누가 내 집을 잡아먹고 있는가” 마녀의 물음에 “바람이어요, 바람이어요”하고 꼼짝않고 계속해서 먹어치운다. 과자로 만든 집의 지붕마저도 먹어 치움으로써 마녀에게 붙잡히게 되는 과정은 쾌락의 원칙에 지배되는 결과 뒤에 수반되는 현실의 원칙이 암시된다. 마녀와의 싸움에서 어린이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마녀가 패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4~5세의 어린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버려지는 격리불안과 잡아먹히는 공포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공포는 특정한 시기가 아닌 모든 연령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어린 유아에게는 헨젤과 그레텔에 매혹되고 안도감과 상상력을 준다. 그레텔이 마녀를 무찌르고 오빠를 구함으로써 오빠의 지배를 분개하는 어린이에게는 더없는 성취감을 줄 것이며 오빠의 지배를 바라는 어린이에게는 오빠에 대한 보다 깊

은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버려지기 이전의 여성(그레텔) 주인공은 철저하게 남성(헨젤)에 대한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마녀에게 붙잡힌 뒤부터는, 지금까지 의존적이고 주도적인 남녀의 성역할은 완전히 백팔십도 돌변하게 된다.

헨젤은 마녀에게 붙잡혀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토록 연약하던 그레텔(여성)은 놀라운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결국 무서운 마녀를 죽이고 헨젤(남성)을 구하고 승리의 전리품 보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다.

4) 이니시에이션과 여성의 성적 성숙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래동화 속의 여성은 무의식 속에서 매우 의미있게 표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래동화의 내용이 되는 이니시에이션 과정에서도 잘 표출되고 있다. 전래동화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탄생과 사회적 성숙, 결혼, 죽음 등의 문제들이다. 전래동화에 나타난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나 왕, 형제 등의 죽음을 통해 사건의 발달을 이루고 새로운 탄생과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과정이(격리의식, 변화의식, 통과의식)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콩쥐팍쥐」, 「신데렐라」, 「개구리왕자」, 「개구리 왕비」, 「개구리 공주」 등의 전래동화들은 전형적인 이니시에이션을 다룬 동화로서 여성의 탄생과 성장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 형제 간의 갈등과 성장기의 불안 등을 다양하게 다룬 작품들이다. 그중에서 「개구리 왕자」는 사춘기 소녀의 성적 성숙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여성의 완성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인 암시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다.

개구리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의 하나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개구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동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개구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든 개구리는 성의 미성숙, 인격의 미성숙함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는 성적 성숙의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부분을 보면 금공을 가지고 노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등장한다. 사건은 금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금공은 구체라는 것, 제일 귀중한 재료 즉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함을 상징한다. 이 공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발달단계의 자기애적 정신이다. 이 공이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빠졌을때 이미 순진함은 상실된다.

공주는 정신의 상징(공)이 떨어진 어둠속에서 완전함(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흥하게 생긴 개구리뿐이다. 인생은 그 어두운 측면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서 더욱 흥하게 복잡해진다.

소녀는 여전히 쾌락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양보해주지 않는다. 공주는 개구리를 문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임금님의 모습으로 초자아가 등장한다. 공주가 개구리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할수록 왕은 점점 더 엄격하게 약속은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한다. 놀이로써 시작한 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로 발전한다. 공주는 자기가 한 약속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성장해야만 된다. 여기에서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가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소녀는 처음에는 혼자서 자기 공을 가지고 논다. 개구리가 공주에게 무슨 곤란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봄으로써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공을 찾아주었을 때도 개구리와 공주 사이에 교섭이 있다. 그 후 개구리가 공주를 찾아가 옆에 앉고 식사를 같이 하고 공주의 방으로 최후에 공주와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최초의 성적인 접촉을 쾌적한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최초의 성적인 접촉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불안에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혐오감을 억제하고 타인과의 연결이 밀접하게 됨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밀접함이 완전한 것이 되고 감추어진 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우리들은 깜짝 놀랄 정도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개구리는 마치 아이들이 탄생될 때와 마찬가지로 물속에서의 생활에서 물밖으로 나온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옛날이야기는 우리들의 발생학의 지식을 몇세기 전에 이미 예견한 듯하다. 개구리가 변태하듯이 인간의 태아도 출생때까지 여러 가지 발달과정을 거치는데 개구리의 성숙과정은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개구리 왕자」만큼 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지닌 듯하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교묘하게 가르치는 옛날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된다.

개구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과 관련해서 공주 신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개구리와 공주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성에 관해서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선 성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느껴도 당연한 일이라고 안심시키고 때가 되면 바람직한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에 대해서 준비시킨다.

「개구리 왕자」 이야기는 이러한 개구리의 모습을 성의 상징으로 이용함으로써 아동의 무의식에 얘기해서 그 아이들이 성이라는 것을 자기 연령에 알맞은 형태로 받아들인다.

성은 처음에는 동물적이어서 징그러운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성에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길만 찾게되면 징그럽게 보이는 그 이면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전해야만 된다.

옛날 이야기는 성적인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암시하지 않으면서도 심리학적으로 보아서 의식적인 성교육보다도 올바로 전하고 있다.

현재 성교육은 성이 정상이고 아름답기도 하고 인류의 존속을 위해선 결여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육은 아이

들이 현재 성을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은 방어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옛날 이야기는 정말 개구리(다른 동물이라도 좋다)는 징그럽다고 동의해서 아동의 신뢰를 얻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 있듯이 때가 오면 인생을 같이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동료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직접 성적인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 이 동화는 「개구리 왕자」지만 작품의 주인공은 왕자가 아닌 바로 공주이며, 여성의 성적 성숙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는 무의식적 과정을 자연스럽게 잘 나타낸 작품이다.¹²⁾

5) 한국전래동화에 나타난 남녀의 성대결

한국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남녀의 성비로 구분하여 보면 65:19로 남아가 여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서 손동인¹³⁾은 당시 사회가 부권중심, 남성중심사회였기 때문에 이 같은 사회문화적 현상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스토리 중에서 남녀의 성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화들은 「장보러간 바보사위」¹⁴⁾, 「진지담배」¹⁵⁾와 같이 남성은 여성보다 우둔하거나, 나약하며,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하며 반면에 여성은 지혜롭고 강하며 성공한다.

바보 남편이 부인과 함께 처가엘 가게 되었다. 부인이 남편에게 처가에서

12) 김희경, 『명작동화의 매력』(교문사, 1992), p. 242.

13)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건강부약의 법칙준용』(정음문화사, 1984), p. 69.

14) 이원수·손동인, 『장보러간 바보사위, 한국전래동화집 제1권』(창비사, 1980), pp. 35~40.

15) 손동인, 앞의 책. p. 69.

의 인사법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잘 터득을 하지 못했다. 생각하던 끝에 부인은 남편의 고추에다 실을 길게 매 동이고는, 부엌에서 자기가 그 한 끝을 한 번 당기면 ‘진지 잡수셔요’ 하고 절을 하고, 두 번 당기면 ‘담배 피우셔요’ 하고 절을 하라고 약속을 한다. 이리하여 남편은 부인과 처가에 와, 장인과 겸상으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때 마침 자기 고추를 당기므로 ‘진지 잡수셔요’ 고 인사를 한다. 장인은 사위가 인사 범절까지 아니, 이제 제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윽고 상을 물리자 실을 두 번 당겼다. 그러자 사위는 얼른 “담배 피우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인사가 잘 되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바보 남편의 고추를 두 번 당기더니 잇달아 수없이 당겨댔다. 실은 이때 그 부인이 변소에 가느라 그 실 끝을 북어 대가리에다 매어 두고 갔는데, 그 사이 그 집강아지가 들어와서 그 북어 대가리를 떼어 먹으려고 물고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줄도 모르고, 바보 남편은 부엌에서 부인이 당기는 줄만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급하게 그리고 연달아 ‘진지, 담배, 진지, 담배’ 하고 무수히 절을 하여 장인에게 인사했으나 망신만 당했다.

한국 전래동화에서의 이 같은 현상을 손동인은 건강부약의 원칙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억압받는 문화 속에서 약자를 높이고 강자를 견제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창작동화에서의 페미니즘

전래동화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지혜와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과정을 통해서 아동에게 전달하는데, 전래동화의 특징은 환상적이며 줄거리와 등장인물이 전형적이고 문장이 산문적 서사적 묘사가 개성적이며 정경이나 성격의 묘사가 개성적이기보다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창작동화는 한 작가의 독창적 역량으로 창작된 문학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개인적 사상과 정서가 큰 비중을 차지할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이 구

체적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표현방법과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작가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보편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래동화의 전형을 그림이나 뼈로의 동화를 꼽는다면 창작동화의 전형을 안데르센이라고 할만큼 안데르센 동화는 어린 독자와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 왔기 때문에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타난 여성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아동문학에 나타난 페미니즘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빈민가의 구두 수리공인 아버지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안데르센은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병적인 거짓말쟁이 할머니를 가족으로 둔 비참하고 황폐한 성장배경을 갖고 있다.

불우한 성장과정과 사회적응의 혹독한 시련 끝에 시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그의 처녀작 「임종의 아이」는 그의 고통스런 삶의 역경을 '어머니'에게 호소하고 있다

엄마, 나 피곤해요 / 이제 자도 되나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잘래요
 그러나 울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하는거야
 얼굴에 엄마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
 이곳은 냉랭하고 밖에선 폭풍이 불고있어
 그런데 꿈속에선 모든 것이 아름다워
 이제 나 눈을 감을래 / 아름다운 천사가 보여요

안데르센의 처녀작 「임종의 아이」 전문¹⁶⁾

또,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운오리새끼」, 「백조왕자」, 「인어공주」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김희경, 앞의 책, p. 459.

〈미운오리새끼〉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주 시원한 시골풍경이었습니다. 첫여름이 된 것입니다.....

어미 오리 한 마리가 둥우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새끼를 까려고 날개로 알을 꼭 품은 채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루하고 찾아와 주는 이도 없어 그만 지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 노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마침내 알이 하나둘 깨어 '빠약 빠약' 울어댔습니다...

자 어서들 오너라... 어미오리가 새끼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들 모었니?” 하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아니, 제일 큰 알이 아직 깨지 않았구나.”...

“...아직 구멍도 나지 않는군요. 그렇지만 어머니 먼저 난 저 애들좀 보세요, 여간 예쁘지 않아요, 꼭 저희 아버지 닮지 않았어요? 참 애들 아버지는 여태 와보지도 않고 뭘 하는 걸까?” “애 어디 그 알좀 보여다오” 할미 오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칠면조 알인가보다. 이런 건 내버려두고 일찍 난 아기들이나 데리고 가서 해엄치는 법을 가르쳐주렴” 그러나 어미 오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품고 있었으니 좀더 품어보겠어요”¹⁷⁾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무리에 의해 따돌림 당하는 상대적 가치의 초라한 자신이 아닌 백조로서의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어미오리의 새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고통과 역경을 헤치고 인내하는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자신 혼자서 새끼들을 까기 위해 힘든 일을 치루면서 아빠(남성)에 대한 원망을 던지면서도 할머니에게 “여간 예쁘지 않아요, 꼭 저희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하면서 대견스럽게 바라보는 어미오리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여성의 관용과 사랑과 마음을 넉넉하게 느낄 수 있다.

17) 안데르센, 이원수 역, 『안데르센 동화집,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51』(계몽사, 1983), pp. 205~206.

안데르센의 작품 중에서도, 그를 페미니즘 작가라 할 만큼 여성지향적인 경향은 ‘동화의 세계로 초대’ 하는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오세요 귀여운 소녀여
자 들어와요
나의 시의 작은 빛의 나라로 오세요
이곳에선 꽃도 나무도 동물도
다같이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 우리들의 생활은
그대로 한편의 동화나라예요

안데르센의 시 「어떤 소녀에게」 전문¹⁸⁾

한편 「인어공주」의 후반부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¹⁹⁾

왕자를 위하여, 공주는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까지 버리고 매일매일 끝없는 고통을 참아온 것인데, 왕자는 조금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왕자와 똑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이제 오늘밤뿐입니다. 깊은 바다를 보는 것도, 별이 반짝이고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오늘밤이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는 그 영혼을 가질 수 없게 된 인어공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일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영원한 밤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밤새도록 흥청거리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인어공주는 춤을 추고 또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가 아름다운 신부에게 입을 맞추자 신부는 왕자의 검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화사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

18) 김희경, 앞의 책, p. 496.

19) 안데르센, 앞의 책, pp. 46~50.

잠이 들었습니다.

인어공주는 하얀 팔을 뱃전에 괴고 동쪽하늘의 아침 놀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님이 나오게 되면 그 최초의 빛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공주는 잘 알고있습니다.

해님이 올라오기 전에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해. 왕자의 따뜻한 피가 너의 발에 묻으면 두 개의 발이 다시 하나로 붙어서 물고기의 꼬리가 되어 너는 원래의 인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죽어서 바다 거품이 될 때까지 2백년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자. 빨리! 왕자나 너, 어느 한쪽이 햇님이 뜨기 전에 죽지 않으면 안돼! 할머니도 너무나 걱정을 하셔서 흰 머리칼이 다 빠져버렸을정도야. 왕자를 죽이고 다시 돌아와! 자아, 빨리! 하늘이 밝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니? 이제 곧 해가 뜰거야. 그러면 넌 죽어.”

언니들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물결 속으로 잠겨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몸을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새벽 여명이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쳐다보고 날카로운 단도를 응시하고, 다시 왕자에게 조용히 눈을 돌렸습니다. 그때, 왕자는 꿈 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마음 속에는 신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어공주가 꽂 쥐고 있는 단도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인어공주는 칼을 멀리 물결 속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칼이 떨어진 곳이 빨갛게 빛나고 마치 핏방울이 물 속에서 거품을 만들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벌써 희미해져가는 눈으로 한번 더 왕자를 바라보고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햇님이 바다에서 떠올라 와 죽음의 냉기를 지닌 바다거품 위에 온화하고 따스한 빛으로 비쳤습니다. 작은 인어공주는 자신이 죽었다는 느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햇님을 올려다보자 머리 위쪽에 투명하고도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것들 수백개가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건너편에 하얀 돛과 하늘의 발간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소리는 음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음률은 영혼의 체계의 것이어서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

고, 또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개
가 없어도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자연히 공중에 떠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날아가는 것일까?”

“공기 아가씨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는 맑고 투명한 팔을 햇님이 있는 쪽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왕자가 아
름다운 신부와 함께 공주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어공주는 사람에게 보
이지 않기 때문에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왕자에게 미소를 보내고 나서 공기
아가씨들과 함께 공중을 흘러가는 장밋빛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인어공주」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그리
고 왕자와 결혼하는 경쟁자 여성에까지도 사랑으로 바라보며 생명을 사랑
하고 구원하는 여성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의 상징인 목소리를 잃고 인어의 꼬리 대신 여성의 하체(성기)인 두
다리를 선택한 것은 식민화된 여성의 몸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
다. 즉, “자신의 몸의 주인이어야 할 상황에서 희생과 상실을 통해 남성의
침범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운명이 인어공주의 다리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인간이기 이전에 여성이 되어야 하는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갈라
지고 찢겨지는 여성의 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²⁰⁾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인어공주가 하는 사랑
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팍쥐」, 「잠자는 공주」 등의 사랑과는 본질
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 전래동화에서의 주인공들은 왕자나 권력있
는 남성으로부터 선택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랑인데 비해, 인어공주
의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는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조건없는 숭고한 영혼을 갖는 사랑이다.

20) 김미현,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그 사이」, 『여성문학연구』(예림기획, 2001).

이 높이와 넓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소유자가 바로 여성이고, 이것이 바로 남성이 모방할 수 없는 여성의 위대한 모성이자 정체성이고, 여성의 자아실현인 것이다.

4. 동시에 나타난 페미니즘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 여성은 생명의 탄생과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아동문학 작품 속에도 장르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투영되어 있다.

동시에 나타난 남녀의 성역할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서 국내의 권위있는 문학상작이면서 가장 많이 읽히는 동시집 5권에 대한 분석에서, 시의 소재에서 남녀 성차이는 없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율은 7:3 정도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 전형적인 작품으로 장수철의 「어머니의 얼굴」, 정두리의 「어머니」, 「어머니의 눈물」을 선정하였다.

엄마의 큰 눈이 / 샘물처럼 맑을 때엔
 눈부신 태양이 / 방안까지 들어온다.
 온실로 변한 방안을 / 나는 나비가 되어
 웃음꽃사이를 / 나풀나풀 날아다닌다.

엄마의 큰 눈이 / 흐려서 동굴속만큼이나 어두울 때엔
 나는 윗목에 혼자 앉아 / 병어리 화가가 된다.
 하얀 도화지에 / 엄마의 큰 눈을
 그렸다가 지우고 / 또 그려본다.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못때리신다.
아픈 매보다 더 무서운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

정두리의 「어머니의 눈물」

달빛인가 가만히 방문 열고 들어오는 이
바람인가 조그맣게 숨소리를 내시는 이
별빛인가 반짝 눈을 뜨게 만드는 이
보이듯 안보이게 안보이듯 보이는 이
우리에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계시는 이

정두리의 「어머니」 전문.

5. 아동문학에 나타난 남성중심적 편견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아동문학에 나타난 여성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본 입장과는 달리, 아동문학에 나타난 여성차별을 밝힌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남녀 성평등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성에 대한 성편견을 밝힌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²¹⁾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동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한 연구는, 1938~40년 사이의 그림책과 1986~88년 사이의 그림책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50년의 흐름 속에서 남녀 평등주의적 표현 경향이 약간 나타났다고 보고하

21) 김현희, 『팬터지의 연구방법, 환상그림책으로의 여행』, 한국어린이문학교육연구회(다음세대, 1999).

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여성 표현의 증가보다는 중성 표현의 증가로 인한 결과 때문이었고, 여전히 각 범주에서 남성이 등장 인물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을 양 시대 모두에서 여성보다 더 활동적이고 바깥에서 더 많이 일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직업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중성 표현의 증가는 남녀 평등이론이 사회에서 대두되어 발달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중립적인 개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구동화에 나타난 고정 관념에 대한 연구」²²⁾에서 「신데렐라」,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백설공주」, 「인어공주」를 성고정 관념의 시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는 이 네 작품 모두가 “백마를 탄 왕자가 구원해 준다”는 것을 주요 주제(motif)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손아미에 의하면 ‘여성적’이라고 규정되어진 희생, 헌신, 모성애, 수동성, 성적인 순진 무구의 특성이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 즉 백설공주는 계모인 왕비의 심한 구박을 견디어 내고 집안 일에 엉망인 난쟁이들에게 모성애를 느끼며, 신데렐라는 의붓어머니의 학대에도 소극적으로 참고만 지낼 뿐만 아니라 인어공주인 아리엘은 왕자와의 키스 장면에서 수동적 태도와 순진 무구성을 드러낸다고 보고하였다.

외국동화와 한국 전래동화, 교육부 동화에 나타난 인물의 성 역할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²³⁾ 이러한 동화 속에 등장하는 남자 인물은 대부분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고 도움을 베푸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여자는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잔소리가 심하고 집안 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소극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교육부 유아 교육 지도 자료집의 동화와 교과서에 나타난 성 역

22) 손아미, 「서구동화에 나타난 성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6).

23) 이윤경, 「유아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성역할의 분석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1).

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²⁴⁾ 역시 주인공의 빈도 수나 직업의 종류 등에서 모두 남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바른생활의 삽화는 빈도 수에 있어서 불평등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림의 표현도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1980~1984년에 출판된 창작 그림책 64권과 1990~1994년에 출판된 그림책 64권을 선정하여 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 관념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도 있다.²⁵⁾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책의 표제에 나타난 성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대에 와서 중성과 여성의 사용이 증가하여 남성, 여성, 중성의 비율이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림책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의 변화는 양 시대간에 중성 등장인물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알렌 등(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 편견과 차별의 문화 속에 살아왔기에 문학작품은 그같은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아동문학은 문학작품 내면에 살아숨쉬는 심리적 기저에 근거해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 결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과 아동의 관계는 태생학적으로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아동에게 있어서 여성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발달과 생존의 결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심리적 측면에서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 문헌으로 정착된 전래

24) 위의 논문.

25) 성정아,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5).

동화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전래동화의 내용은 인간 무의식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의 의미체계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성장기의 격리불안, 현실원칙과 쾌락의 원칙, 남녀의 성역할 모델, 전래동화의 내용체계가 되는 이니시에이션 등이 한국과 외국의 전래동화 속에서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는 안데르센의 **창작동화**와 현대의 **창작동시**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은 남성보다도 차별적인 성 불평등을 겪어 왔기 때문에 **아동문학**에서의 외형적인 표현내용은 주인공의 인물묘사에서 여성에 관한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에 투영된 진정한 페미니즘의 탐색은, 외적인 인물묘사에 나타난 남성중심적 편견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면에 깊이 투영된 심리적 암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아동문학**은, 여성의 성적 소외·불안·갈등·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여성 성 정체성 형성, 여성의 성평등과 수월성 추구 등이 보편적으로 암시된 심리적 기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필자 : 전주 우석대 교수

〈참고문헌〉

- 김경중, 『아동문학교육의 이해』, 학지사, 근간.
- , 김재숙, 『동화 및 언어지도』, 양서원, 1997.
- , 『동화의 심리학적 의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 김미현, 『한국 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 「인어공주와 아마조네스 그 사이」, 『여성문학연구』, 예림기획, 2001.
- 김현희, 『팬터지의 연구방법, 환상그림책으로의 여행』, 한국어린이문학교육연구회, 다음세대, 1999.
- 김희경, 『명작동화의 매력』, 교문사, 1992.
- 메기힘, 심정순 역, 『페미니즘 이론사전』, 삼신각, 1995.
- 박광자, 「새로운 여성문학의 개념과 특성」, 『한우근 교수 회갑기념논문』, 이영사, 1990.
-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건강부약의 범칙준용』, 정음문화사, 1984.
- 성정아,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손아미, 「서구동화에 나타난 성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심은경, 「아동용 도서에 나타난 성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안데르센, 이원수 역, 『안데르센 동화집,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51』, 계몽사, 1983.
- 이원수 · 손동인, 『장보러간 바보사위, 한국전래동화집 제1권』, 창비사, 1980.
- 이윤경, 『유아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성역할의 분석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재철, 『아동문학의 이론』, 형설출판사, 1988.

페리노들먼, 김서정 역, 『어린이문학의 즐거움1』, 시공사, 1996.

Bettelheim, B. *The uses of enchantment :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NY : Alfred A. Knopf, 1997.

Georg Siegmund, *Die Stellung der Frau in welt von heute*, 박영도 역, 현대여성지의 지위, 부산, 1988.

Abstract

We considered Feminism as the following three parts : First, a freedom from sexual alienation, anxiety, complex and oppression in women. Second, a formation of sex identification of women. Third, a sex equality of women and a pursuit of superiority.

On the one hand, the four criterions are the literature written for children, the recognized literature suitable for children, the literature received by children and the literature for a system of behavior and symbol.

We analysed Feminism the following courses by these criterions :

1. the woman presented with the principle of reality and pleasure projected by traditional fairy tale
2. the sexual-role model balanced by man and woman
3. the initiation and the sexual maturation of women
4. sexual confrontation presented by traditional fairy tale in Korea
5. the Feminism presented in Andersen fairy tale
6. the Feminism presented in children's verse

We summed up the result presented through this analysis as follows :

1. There are a plenty of contents which can help them a freedom from sexual alienation, anxiety, complex and oppression in women traditional fairy tale in Korea.
2. The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 treats the isolated-anxiety problems which growth-period children suffered. Here, the sources of anxiety are, for

the most part, the separation from motherhood.

3. The main content of traditional fairy tale in Korea is that presents the course of initiation. This course shows most clearly a birth of woman, sexual maturation and sexual identity.
4. Andersen's creative fairy tale and female emerging at the same time shows clearly woman's superiority as well as sexual equality and identity.
5. In view of Feminism, children literature pursuits universally a content of a freedom from sexual alienation, anxiety, complex and oppression in women, a formation of sex identification of women, a sex equality of women and a pursuit of superiority, etc.